

# 청소년의 진로체험 참여 유형화 및 특성 분석

임한려\* · 홍성표\*\*

## I 알기 쉬운 개요

진로체험을 통해 청소년은 희망하는 꿈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진로체험 기회가 많이 늘어났지만, 체험의 질적인 측면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유형을 분석하여 진로체험의 개선 방향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전체 30%에 불과하며, 많은 청소년들이 직업인 강연, 대화 중심의 간접적인 진로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학생, 중소도시, 대규모 학교일수록 진로체험이 부족했고, 진로체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역량, 진로의식 등이 더 높았습니다. 앞으로 직업 현장에 방문해서 관심 있는 직업들을 직접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진로체험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학교, 중소도시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연구교수

\*\*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교신저자,  
spcareer@catholic.ac.kr

투 고 일 / 2021. 12. 5.

심 사 일 / 2022. 3. 7.

심사완료일 / 2022. 3. 18.

DOI/10.14816/sky.2022.33.2.57

## I 초록

이 연구는 국내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의 참여 양상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2020년 진로교육현황조사 원자료를 활용했으며, 표본은 전국 중학생 8,339명, 고등학생 8,532명이다. 진로체험의 6개 유형인 강연·대화형, 현장견학형, 직업실무체험형, 현장직업체험형, 학과체험형, 진로캠프형의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했으며, 이후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변인을 확인하고 잠재집단별 진로개발역량, 진로정보 필요수준, 학교 진로교육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계층 분석을 통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다양한 진로체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생의 진로체험 집단은 강연·대화 중심형, 포괄적 체험형, 직접 체험부족형으로 구분되었으며, 고등학생은 직업체험 부족형, 현장직업체험 중심형, 포괄적 체험형, 강연·대화중심형이 도출되었다. 둘째, 청소년들은 제한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30% 내외였으며, 대부분 강연·대화 중심의 진로체험을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진로체험 잠재계층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대체적으로 남자, 중소도시, 대규모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로체험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진로교육 만족도, 진로개발역량 등 진로의식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현장 중심형 진로체험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도시, 대규모 학교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이 필요한 진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주제어: 진로체험, 잠재계층분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 I. 서 론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진로체험은 경험을 통해 자신과 직업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실천적인 교육 방법이다(Patton & McMahon, 2014). 텍스트를 벗어나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현장실무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진로체험은 직업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선호가 높다.

대표적으로 2020년 진로교육현황조사에 따르면 향후 가장 경험하고 싶은 진로 프로그램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진로체험의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진로체험 중에서도 현장직업체험형이 진로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중학생 3.92, 고등학생 3.98) (서유정 외, 2020).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등은 진로체험 플랫폼인 꿈길을 개설하고 지역 진로체험처를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진로체험 운영이 제한적이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진로체험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중학생 2015년 74.2% → 2019년 90.0%, 고등학생 2015년 68.4% → 2019년 78.3%).

진로체험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계에서는 진로체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와 진로체험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체험은 청소년의 진로자기효능감(김신영, 최운실, 2014), 진로정체성(손원빈, 조성근, 2017; 장희선, 윤정이, 2016), 진로성숙(김기현, 유홍준, 오병돈, 2014; 김영식, 이기정, 2016), 창의성(어윤경, 2015), 학습동기(조연희, 2019)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특히 김기현, 유홍준, 오병돈(2014)과 김영식, 이기정(2016)의 연구는 표본의 선택편의를 조정하고 진로체험의 효과성을 분석했는데 청소년의 직접 및 간접적인 진로체험은 진로흥미를 유발하고 미래 진로목표를 수립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진로성숙을 촉진한다(김기현, 유홍준, 오병돈, 2014). 이외에도 진로체험의 제도 개선과 관련한 강경균, 성윤숙, 김승보, 장현진(2019), 박화춘, 문승태, 박천수(2021) 등이 존재한다.

이처럼 진로체험의 효과성과 여러 정책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실제 청소년들이 어떠한 진로체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한 진로체험의 패턴에 따라 진로발달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등 청소년의 진로체험 양상과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진로체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는데, 최윤정(2012)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유형화했지만, 진로체험을 구분한 기준이 다르고, 진로교육법 제정 이전 시점에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전국 단위의 진로교육현황조사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대표성이 높고 표본의 대표성뿐만 아니라 진로교육현황

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 핵심 진로체험 종류(강연·대화형, 현장견학형, 직업실무체험형, 현장직업체험형, 진로캠프형, 학과체험형)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기 진로발달 과정에서 직접적인 진로체험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도 학술적인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진로체험을 중점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이러한 학생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학교적 특성이 학생들의 진로체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로체험이 나아갈 방향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잠재계층분석과 회귀분석 및 차이검증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체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유학기제의 변화, 고교학점제 도입 등 진로교육의 변화 속에서 진로체험의 역할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진로체험 개념

진로체험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경험을 형성하는 활동으로 진로교육법 2조(정의)에 따르면 진로체험은 “학생이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진로체험은 직업현장을 찾아가 직접적으로 관련 경험을 하는 것을 진로체험으로 보는 협의적인 관점과 진로와 관련된 탐색, 관찰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간접적 직업체험을 포함하는 광의적인 관점으로 구분된다(김신영, 최운실, 2014).

진로체험은 다양한 형태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김승보 외(2016)는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체험과 함께 자아이해, 사회적 역량, 진로탐색 및 준비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진로개발 체험활동이라는 포괄적인 범위의 진로체험을 제시했으며, 세부적으로 일기반, 직업현장 중심의 체험활동을 강조하는 일기반 체험활동, 직업현장에서의 체험에 초점을 맞춘 직업현장기반 체험활동으로 범주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2017 진로체험 매뉴얼(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과 매년 실시되고 있는 진로교육현황조사에서는 진로체험을 강연·대화형, 현장견학형, 직업실무체험형, 현장직업체험형, 학과체험형, 진로캠프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강연·대화형은 여러 직업인들의 강연(대화)을 통해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며, 현장견학형은 학생이 직접 직업 현장 또는 홍보관을 방문하여 직업활동을 관찰하고 대화하는 형태이다. 직업실무체험형은 모의 일터에서 현장직업인과 인터뷰를 하고 관련 업무를 직업 체험하는 형태이며, 현장직업체험형은 관공서, 기업 등 실제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이다. 학과체험형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방문하여 특정 학과와 관련된 실습, 견학,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활동이며, 진로캠프는 특정한 장소에서 심리검사, 상담, 멘토링, 직업체험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진로체험은 학생의 직업현장 방문 여부, 실제 직무 수행경험 여부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자유학기(학년)제 도입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 체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진로체험 플랫폼인 꿈길을 비롯하여, 농어촌 학교의 진로체험을 위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진로버스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특히 꿈길 플랫폼을 통해 지역 중심의 진로체험기관을 탐색하고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진로체험 인프라가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법적으로도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을 통해 진로 체험의 교육과정편성, 진로체험기관 인증 및 지역사회 협력 등의 규정이 명문화 되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운영할 수 있는 바탕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진로체험의 양적인 확대가 곧 질적인 성장으로 연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진로체험은 청소년의 참여 요구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2020년 진로교육현황조사에 따르면 향후 경험하고 싶은 진로교육 활동으로 진로체험이 중학생 57.5%, 고등학생 57.1%로 다른 진로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참여 요구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중 현장직업체험형이 중학생(3.92)과 고등학생(3.98)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도움 정도가 가장 낮은 프로그램은 강연·대화형으로 중학생(3.64)과 고등학생(3.68) 모두 간접적이고 정보전달 중심의 프로그램보다 직접 직업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진로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현장 중심의 진로체험을 선호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의 유형별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강연·대화형이 중학생 69.5%, 고등학생 74.3%로 다른 유형에 비해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현장직업체험형은 중학생 43.6%, 고등학생 24.0%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의 1,981명 청소년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문성호, 박승곤, 윤동엽, 정지윤(201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직업 현장에서의 체험이나 견학을 선호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학교 내에서 진로검사, 진로교과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규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는 청소년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도 직접적인 체험 중심의 진로활동이 가장 도움이 되며(노지혜, 문성호, 2019), 적극적인 진로활동이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 또는 직업활동으로의 참여를 유의미하게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한려, 홍성표, 2021).

결과적으로 그동안 진로체험은 양적으로 성장해왔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접경험, 실무 중심의 진로체험 운영에는 한계가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진로체험 여부 또는 만족도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진로체험의 내실화를 위해 현재 청소년들이 진로체험의 유형별 참여 양상은 어떠한지,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다양한 진로체험 참여가 청소년의 진로의식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황이다.

## 2. 진로체험의 효과성

청소년 진로체험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진로체험 참여 경험 또는 만족도가 청소년의 진로의식, 창의성 등을 유의미하게 강화하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진로체험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요구가 높은만큼 실제 진로체험이 진로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선행연구들이 진로체험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관심을 가진 것은 진로체험의 성과를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데 필수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진로체험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진로체험이 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기현, 유흥준, 오병돈(2014)은 표본의 무작위성을 반영할 수 있는 CEM 방법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체험이 진로성숙과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이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 진로체험을 통해 진로성숙과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영식, 이기정(2016)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경향점수매칭을 통해 표본선택 편의를 조정한 뒤 진로체험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진로체험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영식, 이기정(2016)은 분위회귀를 통해 진로체험 유형의 진로성숙 분위별 효과를 분석했는데 현장직업체험형은 진로성숙도가 낮은 학생에게 더욱 효과적이며, 대화·강연형, 학과체험형, 진로캠프형은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체험 유형에 따라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의 진로성숙 외에도 진로체험은 다양한 진로관련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진로자기효능감(김신영, 최운실, 2014), 진로정체성(손원빈, 조성근, 2017; 장희선, 윤정이, 2016), 진로결정(전영옥, 김태한, 2020), 학습동기(조연희, 2019; Kenny, Walsh-Blair, Blustein, Bempechat & Seltzer, 2010), 창의성(어윤경, 2015)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진로체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진로체험이 청소년의 진로의식과, 학습태도, 창의성 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체험 잠재집단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성과를 진로개발역량,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진로정보요구수준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진로개발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은 평생에 걸쳐 개인의 진로를 개척하고 설계, 준비 및 실행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정의적 역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임효신, 정철영, 2015), 주체적인 진로 개발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진로개발역량은 다양한 연구자와 기관에서 진로교육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인으로 연구되어왔는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은 학생 진로개발역량지표조사 개발과정에서 개인·사회, 진로관리, 학업의 대영역으로 구성된 역량 지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정미나, 임영식(2013)은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계획 및 준비 영역으로 구성된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척도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진로개발역량은 정부의 진로교육 정책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2018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서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진로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권일남, 2015; 김수영, 전주성, 2021; 송인발, 강혜영, 2016; 옥수현, 2017).

유사한 맥락에서 진로체험에 대한 경험은 관심 있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필요한 진로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은선, 임은미(2020)에 따르면, 진로체험에 대해 만족하는 집단은 정보수집활동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진로체험을 통한 학습활동들은 청소년들의 학교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주취정, 김민석(2018)의 연구에서 진로체험 활동이 학교생활 만족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체험 집단들의 진로의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로개발역량과 학교 진로교육만족, 진로정보 요구수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진로체험 집단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차원의 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학교 소재지와 규모, 계열 등에 따른 진로체험 기회와 인프라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정지은, 윤형한, 이민욱, 고요한(2019)의 연구와 장현진(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학교 특성변인들을 선행변인으로 투입하였다.

## 1. 진로체험 유형화

청소년의 진로체험을 군집분석, 잠재계층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참여 패턴에 따른 유형화를 실시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최윤정(2012)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경험을 교과수업, 강연, 진로검사, 학과 안내, 진로상담, 진로체험으로 구분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극적 진로교육형, 체험위주형, 텍스트 위주형, 진로교

육부진형 4개 잠재계층이 도출되었으며, 적극적 진로교육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진로성숙도,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 목표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진로체험을 경험한 중학생이 진로발달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정주원(2016)은 고등학생의 진로체험 유형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제 종사자와 대화하거나 직업현장을 견학 및 방문하는 직접적인 경험 형태의 진로체험이 진로성숙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정은선, 임은미(202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만족과 전공 만족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했는데 낮은 진로체험 만족-낮은 전공만족형, 낮은 진로체험 만족형, 평균 진로체험 및 전공만족형, 높은 진로체험 만족-높은 전공만족 4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4개 유형 중 진로체험과 전공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진로체험의 유형, 만족 수준을 활용하여 유형을 도출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진로체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 및 발달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진로체험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진로체험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진로발달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진로체험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으며(김영식, 이기정, 2016), 청소년이 선호하는 진로체험과 실제 경험하는 진로체험 유형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재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정책적으로도 진로교육현황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현장 중심의 진로체험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을 뿐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참여 패턴은 어떠한지, 패턴별 진로역량, 진로정보 필요수준 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못했다.

최윤정(2012)의 연구가 이와 비슷한 유형화 연구를 실시했지만, 약 10년 전 진로교육법이 통과되기 전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진로체험의 집단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교과수업, 진로검사, 강연, 학과 안내, 진로상담, 진로체험이라는 전체 진로 프로그램의 영역을 중심으로 집단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진로교육의 유형을 분석하기 보다 진로체험이라는 구체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어떤 진로체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참여 양상은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진로교육현황조사의 기준을 활용하여 진로체험 유형을 강연·대화형, 현장견학형, 직업실무체험형, 현장직업체험형, 학과체험형, 진로캠프형으로 구분하여 잠재집단을 도출하였다.

정리해보면, 이 연구는 청소년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진로체험 유형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참여 패턴을 분류하고 각 집단의 특성과 학교 차원의 영향력, 그리고 개인의 진로역량, 진로정보 필요도 등의 집단 차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체험 참여 유형을 도출하고 집단별 특성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매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하고 있는 2020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전국 초·중·고 1,200개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진로교육 환경, 프로그램, 진로교육 인식 현황을 분석하는 대단위 조사로서 2020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 6,352명, 중학교 3학년 8,339명, 고등학교 2학년 8,532명, 학부모 16,065명, 학교 관리자 1,200명, 진로전담교사 1,200명, 담임교사(고) 400명이 참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 8,339명, 고등학생 8,532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세부적으로 성별은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47.7%, 여학생 52.3%, 고등학생은 남학생 47.9%, 여학생 52.1%였다. 학교 소재지는 중학생의 경우 중소도시 25.7%, 대도시 35.2%, 읍면지역 29.1%였으며, 고등학생은 대도시 38.4%, 중소도시 37.2%, 읍면지역 24.4%였다. 학교 규모는 중학생은 중규모 43.7%, 대규모 29.6%, 소규모 26.7%였으며, 고등학생은 대규모 67.8%, 중규모 23.7%, 소규모 8.5%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계고 74.6%,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18.2%,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자사고 등) 4.3%, 예체능계고 2.8%로 일반계고의 비율이 70%를 넘었다. 학교의 설립 유형은 중학생은 국공립이 82.1%, 사립 17.9%였으며 고등학생은 국공립 57.7%, 사립 42.3%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중학생	고등학생
성별	남학생	3,974 (47.7%)	4,090 (47.9%)
	여학생	4,365 (52.3%)	4,442 (52.1%)
학교 소재지	대도시	2,933 (35.2%)	3,273 (38.4%)
	중소도시	2,980 (35.7%)	3,173 (37.2%)
	읍면지역	2,426 (29.1%)	2,086 (24.4%)

변인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규모	대규모	2,465 (29.6%)	5,785 (67.8%)
	중규모	3,647 (43.7%)	2,023 (23.7%)
	소규모	2,227 (26.7%)	724 (8.5%)
학교유형	일반계고	-	6,365(74.6%)
	직업계고	-	1,555(18.2%)
	특목고	-	370(4.3%)
	예체능계고	-	242(2.8%)
설립 유형	국공립	6,843 (82.1%)	4,927 (57.7%)
	사립	1,496 (17.9%)	3,605 (42.3%)

## 2. 연구모형

청소년(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진로체험 참여 유형을 도출하고 집단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학교 차원의 특성을 선행 요인으로 설정하고(개인의 성별은 추가적으로 포함)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2020년 진로체험 이후 실시한 진로인식 조사의 진로개발역량, 진로정보 필요도,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에 대한 차이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행 요인의 학교적 특성은 청소년의 진로체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장현진(2018)에 따르면 학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진로체험에 차이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진로체험 확대를 위한 원격멘토링, 진로체험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학교의 경우에도 진로전담교사 부족으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데 제약이 있으며(정지은, 윤행한, 이민욱, 고요한, 2019), 고등학교는 직업계열, 예체능계열 등 계열적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진로체험 유형별 경험에 차이가 존재한다. 결과 변인으로는 진로개발역량,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및 진로정보 필요도를 투입하였는데, 진로개발역량은 진로교육의 성과로 강조되고 있으며, 삶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로를 주체적으로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역량으로 정의된다(송인발, 강혜영, 2016). 선행연구에서도 학생들이 경험하는 진로체험의 유형에 따라 진로개발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허은정, 윤지영, 2021). 이외에도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는 학교가 제공하는 전반적인 진로교육의 질적인 부분을 의미하며, 진로정보 필요도는 진로체험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학습했다면, 진로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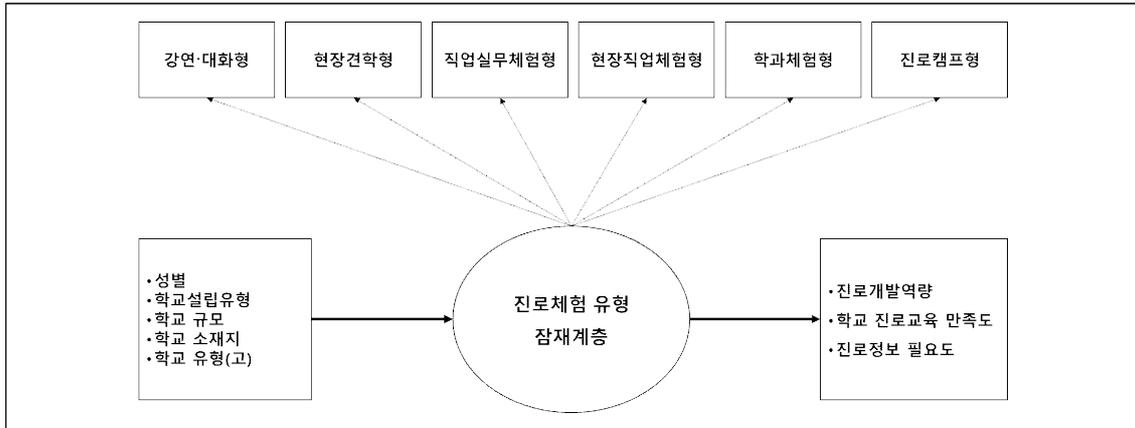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3. 측정도구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의 진로체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진로교육현황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진로체험 여부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6가지 진로체험은 강연·대화형, 현장견학형, 직업실무체험형, 현장직업체험형, 학과체험형, 진로캠프형으로 참여, 미참여 이분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특성은 학교 소재지, 학교 규모, 설립 유형을 투입했으며, 학교 소재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고 더미변수화 하였다. 동일하게 학교 규모도 대규모(한 학년이 평균 8학급 이상), 중규모(한 학년이 평균 4~7학급), 소규모(한 학년이 평균 1~3학급)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를 투입했으며, 설립유형은 국공립을 1, 사립을 0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고를 기준 변수로 직업계고, 특수목적고, 예체능계고의 학교 유형을 더미변수화 하여 투입하였다.

개인특성 및 진로인식 영역에서는 개인의 성별을 남학생 1, 여학생 0으로 코딩하였다.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는 1개 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학생이 인식하는 학교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였다(“학생은 학교 진로활동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진로정보 필요 수준은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이해, 진로체험, 직업, 학과, 진학입시, 진로설계, 학습방법, 취업, 창업 항목에 대해 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정보의 필요 수준을 측정한다(“학생은 다음의 진로정보가 얼마나 필요하니까?”). 단일요인으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기준 중학생 0.945, 고등학생 0.928로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진로개발역량은 중학생 20문항, 고등학생 21문항으로 자기이해 및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계획 및 준비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이해 및 사회성은 청소년이 자신의 특성과 흥미 등을 이해하는 정도와 관계적 측면에 대한 것으로 6문항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등). 직업이해는 직업의 기능과 직업의식 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으로 5문항이며(“나는 직업의 여러 가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등), 진로탐색은 5문항으로 관심 있는 진로에 대한 정보 탐색 및 체험 수준을 의미한다(“나는 관심 있는 학교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다” 등). 마지막으로 진로계획 및 준비는 구체적인 진로계획 설정, 진로 선택 기준 등에 대한 현재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4문항(고등학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나는 진로를 선택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진로개발역량 전체 신뢰도는 중학생 0.947, 고등학생 0.928이었다. 세부적으로 자기이해 및 사회성은 중학생 0.882, 고등학생 0.884, 직업이해 중학생 0.850, 고등학생 0.876이며, 진로 탐색은 중학생 0.846, 고등학생 0.903, 진로계획 및 준비 중학생 0.871, 고등학생 0.920이었다.

표 2  
조사도구의 구성

변인		문항 수		신뢰도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진로체험 유형		6	6	-	-
학교 특성	학교 소재지	1	1	-	-
	학교규모	1	1	-	-
	설립 유형	1	1	-	-
개인 특성 및 진로 인식	성별	1	1	-	-
	학교 진로 교육 만족도	1	1	-	-
	진로정보 필요 수준	9	9	0.945	0.928
	진로개발역량	20	21	0.947	0.961
	자기이해 및 사회성	6	6	0.882	0.884
	직업이해	5	5	0.850	0.876
	진로탐색	5	5	0.846	0.903
	진로계획 및 준비	4	5	0.871	0.920

#### 4. 분석방법

이 연구의 목적인 청소년(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진로체험 유형화 및 특성 분석을 위해서 먼저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관찰변인 사이의 패턴을 기준으로 하위집단을 도출하는 혼합모형의 한 종류이며, 탐색적인 방법을 통해 추출되는 잠재계층의 적정 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집분석과 차이가 있다(홍성표, 2016).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보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적 잠재계층 모형을 확인하였다. 정보지수가 감소할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군집분

석의 스크리 도표를 분석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정보지수가 감소하는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지점을 적정 잠재계층 수를 가진 모형으로 볼 수 있다(김영서, 홍세희, 2021).

다음으로 상대적인 모형 적합도 비교 방식인 조정된  $\chi^2$  검증(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LMR LRT) 결과와 부트스트랩을 활용한 검증인 BLRT(Parametric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를 활용하였다. 이 방식은 잠재계층 수가 하나 적은 모형과  $\chi^2$  차이를 검증하는 것으로 만약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으면 잠재계층 수가 하나 적은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엔트로피 지수를 활용하여 분류의 질을 확인했는데 엔트로피가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방법을 비교하여 청소년의 진로체험 유형을 도출하였다.

잠재계층을 결정한 이후 3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여 영향요인과 진로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3단계 접근법은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집단을 도출하는 변수만 투입한 기본모형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 사후확률분포를 통해 표본별 소속 집단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분류의 오류를 반영하여 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문영주, 2019). 세부적으로 BCH 방법을 적용하여 잠재계층 간 종속변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했으며, 또한 R3STEP을 통해 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효과를 검증하였다(Asparouhov & Muthen, 2014).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Mplus 8.3이며, 유의수준은  $p < 0.05$  기준을 적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체험 유형별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생은 강연·대화형 72.3%, 현장견학형 63.6%, 직업실무체험형 52.2%, 현장직업체험형 48.8%, 학과체험형 44.0%, 진로캠프형 40.6% 순서였다. 고등학생은 강연·대화형 76.6%, 학과체험형 48.4%, 현장견학형 47.6%, 진로캠프형 35.2%, 직업실무체험형 29.8%, 현장직업체험형 27.5%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학과체험, 진로캠프 참여 비율이 더 높았다.

결과변인인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는 중학생의 평균 3.74(표준편차 0.960), 고등학생 평균 3.76(표준편차 0.955)이었으며, 진로정보 필요 수준은 중학생 평균 3.97(표준편차 0.758), 고등학생 평균 4.04(표준편차 0.729)였다. 진로개발역량은 중학생 평균 3.90(표준편차 0.678),

고등학생 평균 3.79(표준편차 0.699)였다.

표 3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변인		중학생	고등학생		
진로체험 유형	강연·대화형	경험	6,033 (72.3%)	6,536 (76.6%)	
		미경험	2,306 (27.7%)	1,996 (23.4%)	
	현장견학형	경험	5,304 (63.6%)	4,057 (47.6%)	
		미경험	3,035 (36.4%)	4,475 (52.4%)	
	직업실무체험형	경험	4,353 (52.2%)	2,542 (29.8%)	
		미경험	3,986 (47.8%)	5,990 (70.2%)	
	현장직업체험형	경험	4,072 (48.8%)	2,346 (27.5%)	
		미경험	4,267 (51.2%)	6,186 (72.5%)	
	학과체험형	경험	3,673 (44.0%)	4,133 (48.4%)	
		미경험	4,666 (56.0%)	4,399 (51.6%)	
	진로캠프형	경험	3,383 (40.6%)	3,006 (35.2%)	
		미경험	4,956 (59.4%)	5,526 (64.8%)	
	개인 진로 인식	학교 진로 교육 만족도		3.74 (0.960)	3.76 (0.955)
		진로정보 필요 수준		3.97 (0.758)	4.04 (0.729)
진로개발역량		3.90 (0.678)	3.79 (0.699)		
자기이해 및 사회성		4.06 (0.717)	3.99 (0.734)		
직업이해		3.81 (0.772)	3.73 (0.786)		
진로탐색		3.94 (0.763)	3.64 (0.787)		
진로계획 및 준비		3.73 (0.856)	3.74 (0.809)		

## 2. 중학생 진로체험 유형화 및 특성분석

### 1) 중학생 진로체험 유형화

중학생의 진로체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계층 수를 증가시키면서 정보지수의 감소, 상대 모형비교 검증, 엔트로피 및 분류 비율을 기준으로 적정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였다. 잠재계층이 증가할수록 정보지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정보지수가 감소하는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지점에서 적정 계층 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림에서는 잠재계층 수가 3개 이상에서 수평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모형비교 검증에서는 2~5개 모형 모두 LMR LRT, BLRT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류의 질을 대표하는 엔트로피의 경우 잠재계층 수가 3개일

때 0.718로 4~6개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류의 질이 더 정확하다는 점에서 중학생의 진로체험 참여에 대한 잠재계층은 3개로 결정하였다.

표 4  
중학생의 진로체험 잠재계층 분류 결과

분류기준		잠재계층			
		2	3	4	5
정보지수	AIC	55076.45	53984.13	53793.59	53711.30
	BIC	55167.83	54124.71	53983.37	53950.28
	SABIC	55126.52	54061.15	53897.56	53842.23
모형비교 검증	LMR LRT	0.0000	0.0000	0.0000	0.0001
	BLRT	0.0000	0.0000	0.0000	0.0000
분류 질	Entropy	0.825	0.718	0.672	0.657
표본수 및 분류율	집단1	3,621(43.42%)	2,467(29.58%)	2,559(30.69%)	2,613(31.33%)
	집단2	4,718(56.58%)	2,559(30.69%)	1,798(21.56%)	2,247(26.95%)
	집단3		3,313(39.73%)	1,735(20.81%)	1,383(16.58%)
	집단4			2,247(26.95%)	1,350(16.19%)
	집단5				746(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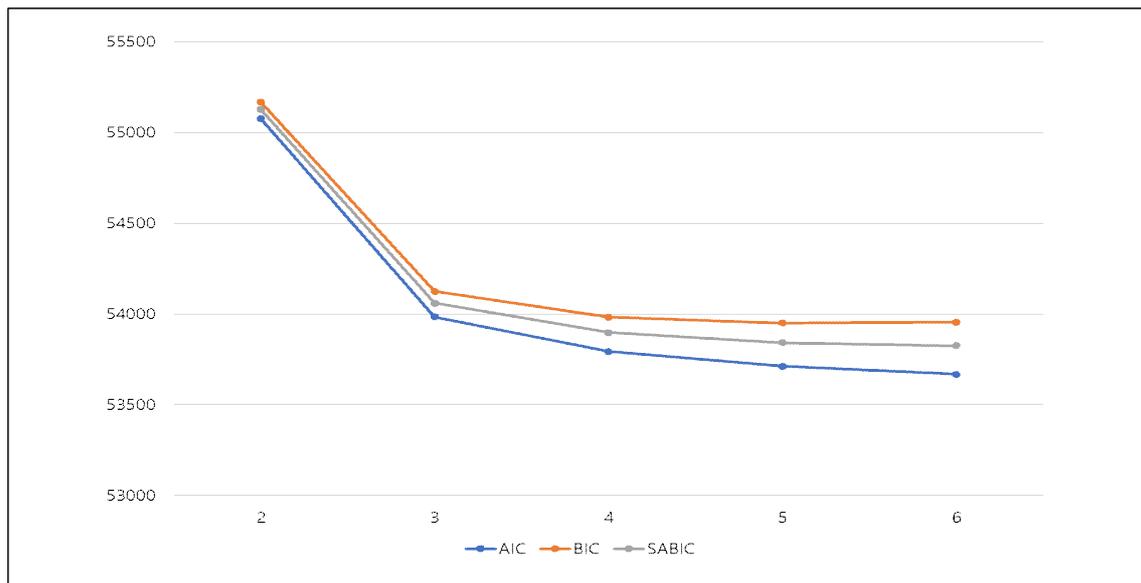


그림 2. 중학생 잠재계층 수에 따른 정보지수 변화

중학생 잠재집단별 진로체험 경험을 살펴보면, 집단1은 강연·대화형의 참여 확률이 0.39, 현장견학형 0.07, 직업실무체험형 0.02, 현장직업체험형 0.05, 학과체험형 0.08, 진로캠프

형 0.10로 대부분의 진로체험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수동적·간접적 진로체험인 강연·대화형의 참여만 0.39이었다. 강연·대화형 또한 다른 집단에 비해 그 수준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집단1을 진로체험 부족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전체 중학생 중 29.58%로 약 30%의 중학생들이 강연·대화를 제외하면 진로체험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2는 강연·대화형 0.97, 현장견학형 0.99 직업실무체험형 1.00, 현장직업체험형 0.93, 학과체험형 1.00, 진로캠프형 0.85로 모든 진로체험 유형을 경험한 집단으로 전체 표본의 30.6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집단2를 포괄적 체험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3은 강연·대화형 0.78, 현장견학형 0.79, 직업실무체험형 0.52, 현장직업체험형 0.47, 학과체험형 0.27, 진로캠프형 0.29으로 강연을 듣거나 현장을 관찰하는 유형의 참여 확률이 높고 실무나 직업, 학과를 체험하는 확률이 낮다는 점에서 직접 체험부족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5  
중학생 잠재집단별 진로체험 경험 비율

구분	포괄적 체험 부족형	포괄적 체험형	직접 체험부족형
표본 수	2,467(29.58%)	2,559(30.69%)	3,313(39.73%)
강연·대화형	0.39	0.97	0.78
현장견학형	0.07	0.99	0.79
직업실무체험형	0.02	1.00	0.52
현장직업체험형	0.05	0.93	0.47
학과체험형	0.08	1.00	0.27
진로캠프형	0.10	0.85	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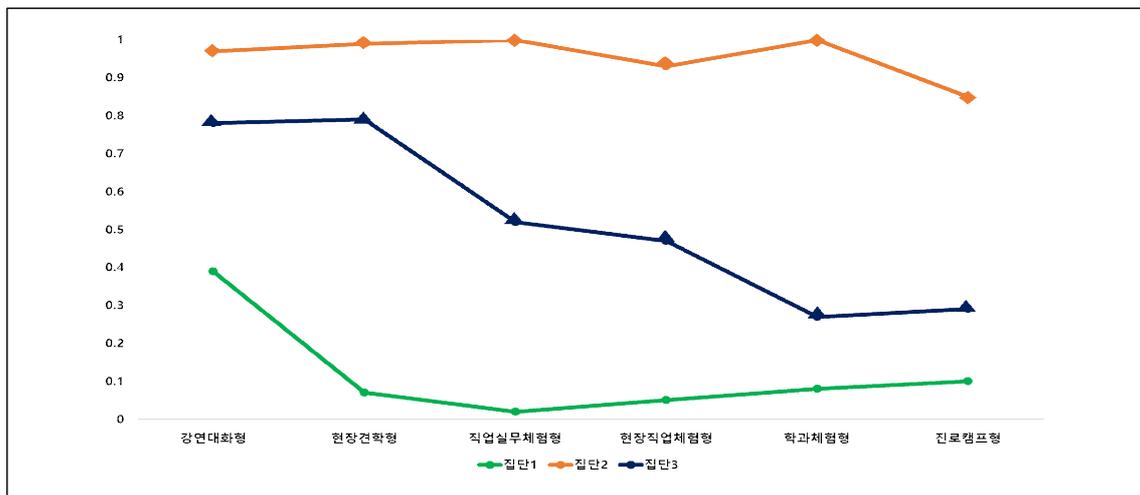


그림 3. 중학생 잠재계층별 진로체험 참여 형태

## 2) 중학생 진로체험 유형별 특성 분석

다음으로 잠재계층을 바탕으로 3단계 방법을 적용하여 학교 특성의 영향력과 결과 변인들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선행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기준집단으로 포괄적 체험형을 설정하고 포괄적체험부족형과 직접 체험부족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읍면지역에 비해 중소도시 소재 학교에 재학할 경우 포괄적체험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승산비: 1.847), 학교 규모가 대규모(승산비: 4.194), 또는 중규모(승산비: 2.523)인 경우 소규모인 학교 보다 포괄적체험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일수록 진로체험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인식과 다른 부분으로 중학생은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역량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포괄적 체험형을 기준으로 직접 체험부족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포괄적 체험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승산비: 0.580), 대도시(승산비: 1.579), 중소도시(승산비: 1.420)에 소재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읍면지역 학생보다 직접 체험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학교 규모도 동일하게 대규모(승산비: 1.511), 중규모(승산비: 1.420)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중학생이 소규모 학교의 중학생 보다 직접 체험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직접 체험부족형과 포괄적체험부족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포괄적체험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으며(승산비: 1.669), 대도시(승산비: 0.755)가 읍면지역에 비해 직접 체험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학교 규모는 대규모(승산비: 2.775), 중규모(승산비: 1.776)의 학교가 소규모 학교에 비해 포괄적체험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중학생 진로체험 잠재계층에 대한 영향요인 결과

변인	기준집단: 포괄적 체험형		기준: 직접 체험부족형
	포괄적체험부족형	직접 체험부족형	포괄적체험부족형
	<i>B(SE)</i>	<i>B(SE)</i>	<i>B(SE)</i>
성별	-0.032(0.067)	-0.544(0.067)***	0.512(0.074)***
학교 소재지 (ref. 읍면)	대도시	0.039(0.108)	0.320(0.103)**
	중소도시	0.613(0.103)***	0.457(0.104)***
학교규모 (ref. 소규모)	대규모	1.434(0.116)***	0.413(0.110)***
	중규모	0.925(0.113)***	0.351(0.102)***
설립유형	0.102(0.092)	0.068(0.102)	0.034(0.102)

주1) \* $p < .05$ , \*\* $p < .01$ , \*\*\* $p < .001$

주2) log likelihood: 423.664, LR chi(12): 555.508, Prob>chi2: 0.000\*\*\*, Pseudo R2: 0.073

중학생의 진로체험 잠재계층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다음 진로체험 집단에 따른 결과변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투입한 변인은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진로개발역량, 진로정보 필요수준이며, R3STEP을 적용하였다. 먼저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포괄적 체험형 4.01, 직접 체험부족형 3.71, 포괄적체험부족형 3.51으로 포괄적 체험형의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진로개발역량에서도 동일하게 포괄적 체험형 4.12, 직접 체험부족형 3.88, 포괄적체험부족형 3.71로 포괄적 체험형에 속한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정보 필요수준에서는 직접 체험부족형 4.06, 포괄적 체험형 4.00, 포괄적체험부족형 3.82로 직접 체험부족형에 포함된 중학생들이 진로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징적인 부분은 가장 진로체험이 부족한 포괄적체험부족형 학생들의 진로정보 필요수준이 가장 낮았다.

표 7  
중학생 잠재집단별 주요 진로변인의 차이 분석 결과

변인	집단	평균(표준편차)	$\chi^2$	사후분석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포괄적체험부족형(a)	3.51(0.023)	279.415***	b > c > a
	포괄적 체험형(b)	4.01(0.021)		
	직접 체험부족형(c)	3.71(0.019)		
진로개발역량	포괄적체험부족형(a)	3.71(0.016)	357.681***	b > c > a
	포괄적 체험형(b)	4.12(0.016)		
	직접 체험부족형(c)	3.88(0.013)		
진로정보 필요수준	포괄적체험부족형(a)	3.82(0.019)	85.847***	c > b > a
	포괄적 체험형(b)	4.00(0.018)		
	직접 체험부족형(c)	4.06(0.014)		

\* $p < .05$ , \*\* $p < .01$ , \*\*\* $p < .001$

### 3. 고등학생 진로체험 유형화 및 특성분석

#### 1) 고등학생 진로체험 유형화

고등학생의 진로체험 잠재계층을 도출하기 위해 정보지수, 모형적합도, 엔트로피, 집단별 표본 비율을 확인한 결과 잠재집단 수가 2에서 5개로 증가하면서 AIC, BIC 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잠재집단이 4개 이후부터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류의 질을 의미하는 엔트로피는 잠재계층이 4개일 때 0.722로 잠재계층이 2개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잠재집단이 4개인 최종 모형을 선정하였다.

표 8  
고등학생 진로체험 잠재계층 분류

분류기준		잠재계층			
		2	3	4	5
정보지수	AIC	54350.59	53216.03	52855.99	52784.50
	BIC	54442.26	53357.06	53046.38	53024.25
	SABIC	54400.95	53293.50	52960.58	52916.21
모형비교 검증	LMR LRT	0.0000	0.0000	0.0000	0.0000
	BLRT	0.0000	0.0000	0.0000	0.0000
분류 질	Entropy	0.835	0.695	0.722	0.704
표본수 및 분류율	집단1	5,840(68.45%)	1,811(21.23%)	3,198(37.48%)	1,146(13.43%)
	집단2	2,692(31.55%)	2,906(34.06%)	976(11.44%)	1,160(13.60%)
	집단3		3,815(44.71%)	1,408(16.50%)	1,353(15.86%)
	집단4			2,950(34.58%)	941(11.03%)
	집단5				3,932(4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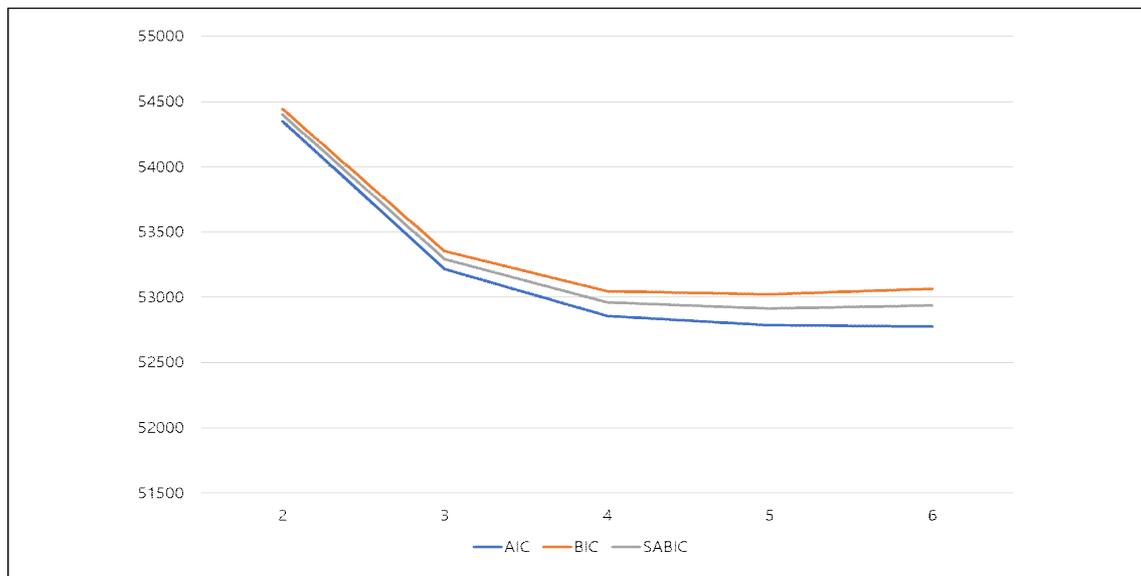


그림 4. 고등학생 잠재계층 수에 따른 정보지수 변화

고등학생 진로체험 잠재집단별 경험 확률을 살펴보면, 집단1은 강연·대화형의 참여 확률이 0.93, 현장견학형 0.55, 직업실무체험형 0.19, 현장직업체험형 0.00, 학과체험형 0.62, 진로 캠프형 0.38로 강연·대화, 현장견학, 학과체험의 참여 확률이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직업 실무체험과 현장직업체험의 참여확률은 낮은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집단1을 직업체험 부족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 포함된 고등학생의 비율은 37.48%였다.

다음으로 집단2는 강연·대화형 0.77, 현장견학형 0.77, 직업실무체험형 0.52, 현장직업체험형 1.00, 학과체험형 0.63, 진로캠프형 0.32로 전반적으로 진로체험 유형별로 참여 확률이 낮지 않았지만, 특히 현장직업체험형의 참여 확률이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이 집단을 현장직업체험 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의 비율은 11.44%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적었다.

집단3은 강연·대화형 0.97, 현장견학형 1.00, 직업실무체험형 1.00, 현장직업체험형 0.90, 학과체험형 1.00, 진로캠프형 1.00으로 대부분의 진로체험 유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에 기초하여 집단3을 포괄적 체험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 포함된 고등학생의 비율은 16.50%였다.

마지막으로 집단4는 강연·대화형 0.49, 현장견학형 0.04, 직업실무체험형 0.01, 현장직업체험형 0.04, 학과체험형 0.05, 진로캠프형 0.02로 강연·대화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진로체험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성을 바탕으로 집단4를 포괄적 체험부족형으로 명명했으며, 진로체험 참여가 낮은 이 집단에 소속된 표본 비율은 34.58%로 상당한 수의 고등학생들이 진로체험이 부족한 유형에 포함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9  
고등학생 잠재집단별 진로체험 경험 비율

구분	직업체험 부족형	현장직업체험중심형	포괄적 체험형	포괄적 체험부족형
표본 수	3,198(37.48%)	976(11.44%)	1,408(16.50%)	2,950(34.58%)
강연·대화형	0.93	0.77	0.97	0.49
현장견학형	0.55	0.77	1.00	0.04
직업실무체험형	0.19	0.52	1.00	0.01
현장직업체험형	0.00	1.00	0.90	0.04
학과체험형	0.62	0.63	1.00	0.05
진로캠프형	0.38	0.32	1.00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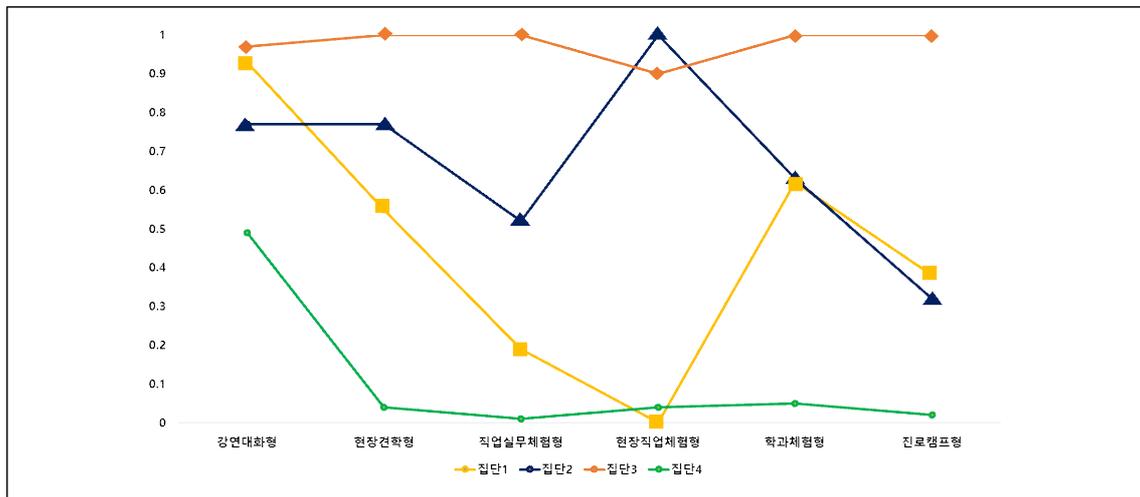


그림 5. 고등학생 잠재계층별 진로체험 참여 형태

## 2) 고등학생 진로체험 유형별 특성 분석

잠재계층을 바탕으로 3단계 방법을 사용하여 선행변인인의 영향력과 결과변인의 집단 차이를 분석하였다. 선행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포괄적 체험형을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고 직업체험 부족형, 현장직업체험 중심형, 포괄적 체험부족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직업체험 부족형이 아닌 포괄적 체험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승산비 0.391), 학교규모가 대규모인 학교의 고등학생들이 소규모 학교 학생들보다 직업체험 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승산비 1.751). 학교 유형에서는 직업계고(승산비 0.334), 예체능계고(승산비 0.575) 학생들이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포괄적 체험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특목고 학생들은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직업체험 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승산비 1.478). 다음으로 포괄적 체험형과 현장직업체험 중심형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남학생이 포괄적 체험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으며(승산비 0.411), 학교 소재지는 중소도시에 위치한 고등학생이 읍면지역에 비해 포괄적 체험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승산비 0.542). 또한 학교 유형 측면에서는 직업계고(승산비 0.556), 예체능계고(승산비 0.362) 학생이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포괄적 체험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포괄적 체험형과 포괄적 체험부족형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포괄적 체험부족형이 아닌 포괄적 체험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승산비 0.632), 중소도시에 학교에 있는 고등학생이 읍면지역 고등학생보다 포괄적 체험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승산비 1.453). 학교 규모에서는 대규모 학교의 고등학생이 소규모 학교 고등학생보다 포괄적 체험부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많았으며(승산비 2.552), 학교유형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일반계고 학생보다 포괄적 체험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승산비 0.716). 반면 예체능계고 학생들은 일반계고 학생들보다 포괄적 체험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승산비 3.016).

다음으로 현장직업체험 중심형을 기준으로 직업체험 부족형과 포괄적 체험부족형을 비교한 결과 중소도시에 학교의 고등학생들이 읍면지역 고등학생보다 직업체험 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으며(승산비 1.655), 학교 규모가 중규모인 학교의 고등학생들이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보다 직업체험 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승산비 1.737). 학교 유형에서는 직업계고 학생이 일반계고 학생보다 현장직업체험 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승산비 0.601). 현장직업체험 중심형과 포괄적 체험부족형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포괄적 체험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승산비 1.539), 중소도시 학교의 학생들이 읍면지역에 비해 포괄적 체험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승산비 2.683). 학교 규모에서는 대규모 학교의 학생들이 소규모 학생에 비해 포괄적 체험부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승산비 1.919), 예체능계고 학생들이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 포괄적 체험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직업체험 부족형을 기준으로 포괄적 체험부족형을 비교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승산비 1.618), 중소도시가 읍면지역보다(승산비 1.621), 대규모 학교가 소규모학교보다 포괄적 체험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승산비 1.458). 또한 직업계고(승산비 2.145), 예체능계고(승산비 5.243) 학생일수록 일반계고에 비해 포괄적 체험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특목고(승산비 0.487)는 일반계고보다 직업체험 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표 10  
고등학생 진로체험 잠재계층에 대한 영향요인 결과

변인		기준집단: 포괄적 체험형			기준: 현장직업체험 중심형		기준: 직업 체험 부족형
		직업체험 부족형	현장직업체험 중심형	포괄적 체험부족형	직업체험 부족형	포괄적 체험부족형	포괄적 체험부족형
		B(SE)	B(SE)	B(SE)	B(SE)	B(SE)	B(SE)
성별		-0.939 (0.080)***	-0.889 (0.117)***	-0.459 (0.079)***	-0.050 (0.097)	0.431 (0.099)***	0.481 (0.076)***
학교 소재지 (ref. 읍면)	대도시	-0.035 (0.128)	-0.146 (0.177)	0.122 (0.127)	0.110 (0.144)	0.267 (0.149)	0.157 (0.123)
	중소 도시	-0.109 (0.125)	-0.612 (0.180)***	0.374 (0.124)**	0.504 (0.150)***	0.987 (0.153)***	0.483 (0.121)***
학교규모 (ref. 소규모)	대규모	0.560 (0.169)***	0.286 (0.227)	0.937 (0.172)***	0.275 (0.193)	0.652 (0.203)***	0.377 (0.177)*
	중규모	0.347 (0.149)*	-0.175 (0.210)	0.126 (0.159)	0.522 (0.182)**	0.302 (0.199)	-0.221 (0.172)
학교유형 (ref. 일반계고)	직업 계고	-1.097 (0.105)***	-0.587 (0.144)***	-0.334 (0.092)***	-0.509 (0.135)***	0.254 (0.127)*	0.763 (0.111)***
	특목고	0.391 (0.190)*	0.070 (0.305)	-0.328 (0.231)	0.322 (0.242)	-0.398 (0.284)	-0.720 (0.213)***
	예체능 계고	-0.553 (0.278)*	-1.016 (0.511)*	1.104 (0.228)***	0.463 (0.477)	2.120 (0.456)***	1.657 (0.249)***
설립유형		0.009 (0.082)	-0.028 (0.122)	0.068 (0.081)	0.038 (0.099)	0.097 (0.102)	0.059 (0.078)

주1) \* $p < .05$ , \*\* $p < .01$ , \*\*\* $p < .001$

주2) log likelihood: 305.478, LR  $\chi^2(18)$ : 215.525, Prob> $\chi^2$ : 0.000\*\*\*, Pseudo R<sup>2</sup>: 0.053

진로체험 잠재 집단에 따른 결과변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는 포괄적 체험형이 4.11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다음으로 현장직업체험 중심형 3.86, 직업체험 부족형 3.78, 포괄적 체험부족형 3.52 순이었다. 진로개발역량도 포괄적 체험형 4.08, 직업체험 부족형 3.84, 현장직업체험 중심형 3.82로 포괄적 체험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진로개발 역량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포괄적 체험부족형은 3.57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진로개발

역량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진로정보 필요수준은 직업체험 부족형 4.11, 현장직업체험 중심형 4.08, 포괄적 체험형 4.08, 포괄적 체험부족형 3.91로 진로체험 경험이 가장 적은 포괄적 체험부족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진로정보 필요수준이 가장 낮았다.

표 11  
고등학생 잠재집단별 주요 진로변인의 차이 분석 결과

변인	집단	평균(표준편차)	$\chi^2$	사후분석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직업체험 부족형(a)	3.78(0.019)	290.924***	c > a, b > d
	현장직업체험 중심형(b)	3.86(0.036)		
	포괄적 체험형(c)	4.11(0.029)		
	포괄적 체험부족형(d)	3.52(0.022)		
진로 개발역량	직업체험 부족형(a)	3.84(0.014)	356.810***	c > a, b > d
	현장직업체험 중심형(b)	3.82(0.027)		
	포괄적 체험형(c)	4.08(0.023)		
	포괄적 체험부족형(d)	3.57(0.016)		
진로정보 필요수준	직업체험 부족형(a)	4.11(0.014)	68.975***	a, b, c > d
	현장직업체험 중심형(b)	4.08(0.027)		
	포괄적 체험형(c)	4.08(0.026)		
	포괄적 체험부족형(d)	3.91(0.017)		

\* $p < .05$ , \*\* $p < .01$ , \*\*\* $p < .001$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이 연구는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의 진로체험 참여 형태를 분석하고 학교 및 개인 특성에 따른 집단별 소속 가능성과 청소년의 진로인식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계층 분석을 통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다양한 진로체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생의 진로체험 집단은 포괄적 체험부족형, 포괄적 체험형, 직접 체험부족형으로 구분되었으며, 고등학생의 진로체험 집단은 직업체험 부족형, 현장직업체험 중심형, 포괄적 체험형, 포괄적 체험부족형이 도출되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공통적으로 강연·대화형 진로체험만 일부 수행하고 다른 진로체험은 거의 참여하지 않은 포괄적 체험부족형과 모든 진로체험 유형

을 경험한 포괄적 체험형이 확인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중학생은 직접적인 직업, 학과, 실무체험이 부족한 유형과 고등학생은 직업체험 부족형, 현장직업체험 중심형의 특징적인 집단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개인별로 진로체험을 경험하는 패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최윤정(2012)의 유형화 결과와 비교해보면, 최윤정(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교육 부진형, 텍스트 위주형, 체험 위주형, 적극적 진로교육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진로체험에 초점을 맞춘 이 연구와 분류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진로교육 부진, 적극적 진로교육형은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청소년들은 제한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진로체험에는 간접적인 형태의 강연·대화형에서부터 실제 직업 현장에서 직무를 체험하는 현장직업체험형까지 다양한 형태의 진로체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잠재계층 분석 결과 다양한 형태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포괄적 체험형의 비율이 중학생은 30.69%, 고등학생은 16.50%로 높지 않았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현장직업체험 중심형을 포함하더라도 27.94%로 30%를 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 대부분이 강연·대화형 진로체험에 중점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견학, 학과탐방을 일부 수행하는 수준에서 진로체험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성호 외(2016)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직업현장에서의 체험이나 견학을 선호하고자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셋째, 진로체험 잠재계층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대체적으로 중소도시, 대규모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로체험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현진(2018)에 따르면 농어촌으로 대표되는 읍면지역의 학생이 대도시에 비해 진로개발역량이 유의미하게 높고, 진로체험,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의 참여율은 읍면지역 학생들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진로체험 인프라의 부족은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주휘정(2016)도 농산어촌 지역 학교들의 접근성 문제로 인해 진로체험 강사, 멘토 섭외가 제한적이며, 진로체험 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 구분 외에도 학교의 규모에 따른 진로체험의 한계도 존재하는데, 대규모 학교는 진로전담교사 부족으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정지은 외, 2019).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중소도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생보다 포괄적 체험형에 소속될 가능성이 더 낮은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읍면지역은 진로체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진로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오히려 중소도시의 학생들이 진로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심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현진(2018)의 연구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맥락에서 진로체험을 유형화한 이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학교급에 따라 다른 것인지, 농어촌 지역에서 진로체험을 다양하

게 진행하더라도 도시지역에 비해 진로의식과 역량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규모 측면에서도 규모가 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일수록 소규모 학교 학생보다 직업체험 부족형, 포괄적 체험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규모 학교에서 진로체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성별에 따른 진로체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포괄적 체험형에 소속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포괄적 체험형이 아닌 포괄적 체험부족형, 직업체험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에서 투입할 수 있는 변인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배경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었지만 성별에 따른 진로체험의 참여 이유와 과정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진로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포괄적 체험형의 진로의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진로개발역량이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진로체험이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김기현, 유흥준, 오병돈, 2014; 김소라, 황영준, 2016; 심재희, 오정아, 조오숙, 2017; 조성심, 주석진, 2010).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진로체험 유형들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인 진로체험 여부 또는 만족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진로체험의 유형들을 활용하여 참여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진로의식 및 행동의 차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되는데, 간접적, 직접적 진로체험을 포괄적으로 경험한 청소년들의 진로의식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직무와 직접적인 경험 중심의 진로체험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로 성과가 더 높았다는 최윤정(2012)의 연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흥미로운 부분은 진로정보 필요수준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거의 참여하지 않은 포괄적 체험부족형의 집단이 진로정보 필요수준도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사실이다. 진로개발역량이 낮은 상태에서 어떠한 진로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들 집단에 대한 진로체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정은선, 임은미(2020)의 연구에서도 진로체험이 낮은 학생들이 오히려 정보수집활동 수준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다층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허은정, 윤지영(2021)의 연구에서도 학교급별 진로체험의 유형이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제언

연구 결론을 바탕으로 도출한 청소년의 진로체험에 대한 실천적,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현장 중심형 진로체험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학교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꿈길 플랫폼과 지역진로체험센터가 운영 및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의 진로체험처들이 제한적인 모의 체험 형태이거나 예술 및 교양 분야 서비스업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진로체험 유형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이 현장직업체험형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직업 현장 중심의 진로체험의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강연·대화형, 학과체험, 진로캠프 뿐만 아니라 실무체험, 현장직업체험을 경험한 포괄적 체험형 또는 현장직업체험 중심형의 진로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와 산업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제한점이 존재하지만 직업계고의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현장 중심 진로체험 체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되고 거버넌스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 학교특성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체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읍면지역보다 오히려 중소도시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들이 포괄적 진로체험형이 아닌 포괄적 체험부족형, 직업체험 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대규모 학교 학생들이 소규모 학교에 비해 포괄적 체험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농어촌 지역의 진로체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읍면 지역이 진로체험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역적으로 진로체험 자원이 부족한 만큼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오히려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 진로체험이 부족한 경향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진로체험 현황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규모 학교 학생들의 진로체험이 부족한 만큼 이들의 진로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의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대규모 학교에서는 진로전담교사의 추가적인 배치 또는 인력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성별에 따른 진로체험의 격차가 확인되었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포괄적 체험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손원빈, 조성근(2017)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체험활동의 참여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청소년기 여학생이 진로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은 학교 소재지, 고등학교의 계열,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남학생들의 진로체험 참여 부족이 실제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면, 남학생의 진로체험 참여 촉진을 위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넷째, 청소년이 필요한 진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잠재집단별 진로정보 필요수준에 차이가 존재했지만 전반적으로 4점 이상의 높은 진로정보 필요수준을 보였다.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에서도 진로정보 필요수준이 높았다는 사실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진로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청소년의 요구를 고려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의 진로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과 변인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시점의 제한으로 인해 잠재집단에 대한 다양한 선행변인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 가정, 학교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경균, 성운숙, 김승보, 장현진 (2019).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93.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2017 진로체험 매뉴얼**.
- 권일남 (2015).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체험이 진로탐색과 진로직업역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3(1), 17-26.
- 김기현, 유흥준, 오병돈 (2014). 진로체험의 효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직업교육연구**, 33(3), 19-36.
- 김수영, 전주성 (2021). 초중고 학생의 교내·외 진로교육 프로그램 (진로활동, 진로체험) 만족도가 진로개발 역량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40(3), 175-199. doi:10.35222/IHSU.2021.40.3.175
- 김신영, 최운실 (2014). 진로체험학습에서 학생·교사의 주도성이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7(4), 71-93.
- 김영서, 홍세희 (2021). 청소년 창업체험활동 참여의 잠재계층과 영향요인 및 성과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2(2), 5-29. doi:10.14816/sky.2021.32.2.5
- 김영식, 이기정 (2016). 진로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경향점수 매칭과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한 접근. **교육과학연구**, 47(4), 125-143. doi:10.15854/jes.2016.12.47.4.125
- 문성호, 박승곤, 윤동엽, 정지윤 (2016). 청소년진로활동의 실태와 프로그램 분석. **청소년학연구**, 23(4), 319-343.
- 문영주 (2019). 부산광역시 읍면동 인적안전망의 지역사회 참여 동기와 활동유형: 잠재계층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1(1), 189-224. doi:10.22944/kswa.2019.21.1.008
- 박화춘, 문승태, 박천수 (2021). 진로체험의 현황과 과제. **성인계속교육연구**, 12(1), 77-114.
- 서유정, 김민경, 류지영, 박나실, 김나라, 안유진, 안중석 (2020). **2020년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초중등 진로교육현황조사(2020)**. 세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손원빈, 조성근 (2017). 고등학생의 체험활동 참여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의 활용. **청소년학연구**, 24(9), 223-247. doi:10.21509/KJYS.2017.09.24.9.223
- 송인발, 강혜영 (2016).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0), 140-149.
- 심재희, 오정아, 조오숙 (2017). 중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과 진로성숙도 향상 효과.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2, 67-92.

- 옥수현 (2017). **진로체험활동 유형과 과학선호에 따른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함양의 차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어윤경 (2015).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한 진로체험 활동의 창의성 함양 효과 연구. **한국교육학 연구(구 안암교육학연구)**, 21(2), 197-219.
- 임한려, 홍성표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탐색활동이 학업 및 직업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진로교육연구**, 34(2), 69-91.
- 임효신, 정철영 (2015).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 개발. **진로교육연구**, 28(4), 107-137.
- 장현진 (2018). 초등학교 소재 지역에 따른 진로교육 격차.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0(1), 125-149.
- 장희선, 윤정이 (2016).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직업체험활동, 생애목표가 진로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271-292.
- 정미나, 임영식 (201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진로교육연구**, 26(4), 65-84.
- 정은선, 임은미 (2019). 고교시절 진로체험 횟수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진로체험 도움정도의 조절효과. **진로교육연구**, 32(4), 289-306.
- 정은선, 임은미 (2020). 진로체험 만족도와 전공만족도에 따른 대학생 군집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직업교육연구**, 39(2), 1-20.
- 정주원 (2016). 고등학생의 진로체험 유형과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28, 139-158.
- 조성심, 주석진 (2010). 체험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진로교육연구**, 23(3), 47-64.
- 조연희 (2019). 진로체험학습이 학습동기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의 비교분석. **청소년복지연구**, 21(4), 33-56. doi:10.19034/KAYW.2019.21.4.02
- 주휘정 (2016). 도농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 진로체험 버스 운영. **HRD Review**, 19(5), 104-111.
- 주휘정, 김민석 (2018).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의 발달 궤적과 영향 요인 분석:진로체험의 참여 횟수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6(2), 91-113.
- 최윤정 (2012). 중학생들의 진로교육 경험에 의한 진로교육 개입 유형 탐색 및 유형별 성과 차이. **진로교육연구**, 25(2), 21-41.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학생 진로개발역량지표 개발·보급**.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doi:10.1080/10705511.2014.915181

- Kenny, M. E., Walsh-Blair, L. Y., Blustein, D. L., Bempechat, J., & Seltzer, J. (2010). Achievement motivation among urban adolescents: Work hope, autonomy support, and achievement-related belief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7*(2), 205-212. doi:0.1016/j.jvb.2010.02.005
- Patton, W., & McMahon, M. (2014). Career development and systems theory: Connecting theory and practice (Vol. 2). Springer.

## ABSTRACT

### Classifying and characteristics analysis of youth participation in career experience programs

Lim, Hanryeo\* · Hong, Sungpy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articipation patterns of young people in career experience programs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which emerged from that experience. For this purpose, raw data from the 2020 School Career Education Survey were used.

As a research model, a latent class analysis was conducted for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6 types of career experience programs. Following this, Antecedent variables affecting the latent group were searched and differences between outcome variables were analyzed.

The main conclusions drawn from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possible to identify various types of career experience programs aimed at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the analysis of latent classes. Second, the research clearly shows that adolescents generally participate in a limited number of career experience programs. Third, the level of career awareness such as satisfaction with career education, and th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of the group participating in various career experience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other groups.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suggested to strengthen the field-oriented career experience.

**Key words:** career experience, latent class analysis, youth,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

\*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areer Development Center

\*\* Assistant Professor, Catholic University of Korea